2월 1주차

WR_202402_02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57차 CATI조사

제72차 ARS조사

7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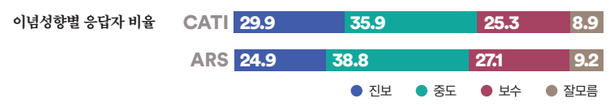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74차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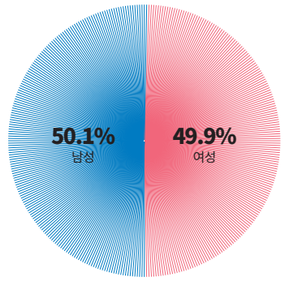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1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3.5% [총 통화시도 7,502명]
조사기간	2024년 2월 2일 ~ 2월 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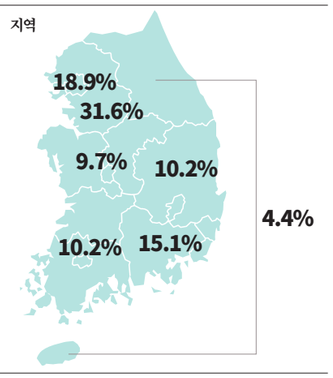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11	100.0%	1,011	100.0%	1.00
성별	남성	507	50.1	501	49.6	0.99
	여성	504	49.9	510	50.4	1.01
연령	18-29세	165	16.3	162	16.0	0.98
	30대	151	14.9	151	14.9	1.00
	40대	184	18.2	181	17.9	0.98
	50대	196	19.4	198	19.6	1.01
	60대	175	17.3	173	17.1	0.99
	70세이상	140	13.8	146	14.4	1.04
지역	서울	191	18.9	188	18.6	0.98
	인천·경기	319	31.6	324	32.0	1.02
	대전·세종·충청	98	9.7	106	10.5	1.08
	광주·전라	103	10.2	98	9.7	0.95
	대구·경북	103	10.2	98	9.7	0.95
	부산·울산·경남	153	15.1	153	15.1	1.00
	강원·제주	44	4.4	44	4.4	1.00

성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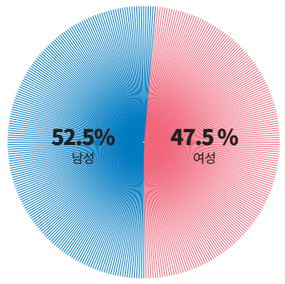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 답 률	2.8% [총 통화시도 35,548명]
조사기간	2024년 2월 2일 ~ 2월 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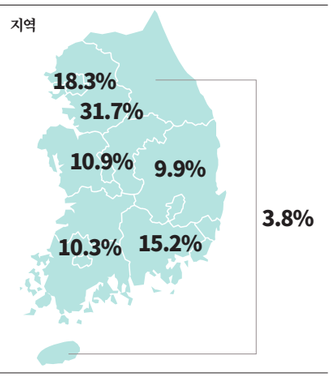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27	52.5	498	49.7	0.94
	여성	476	47.5	505	50.3	1.06
연령	18-29세	122	12.2	161	16.1	1.32
	30대	139	13.9	149	14.9	1.07
	40대	186	18.5	180	17.9	0.97
	50대	214	21.3	196	19.5	0.92
	60대	189	18.8	173	17.2	0.92
	70세이상	153	15.3	144	14.4	0.94
지역	서울	184	18.3	188	18.7	1.02
	인천·경기	318	31.7	320	31.9	1.01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6	10.6	0.97
	광주·전라	103	10.3	98	9.8	0.95
	대구·경북	99	9.9	98	9.8	0.99
	부산·울산·경남	152	15.2	150	15.0	0.99
	강원·제주	38	3.8	43	4.3	1.13

성별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제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하며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제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WWW.
FLOWERRESEARCH.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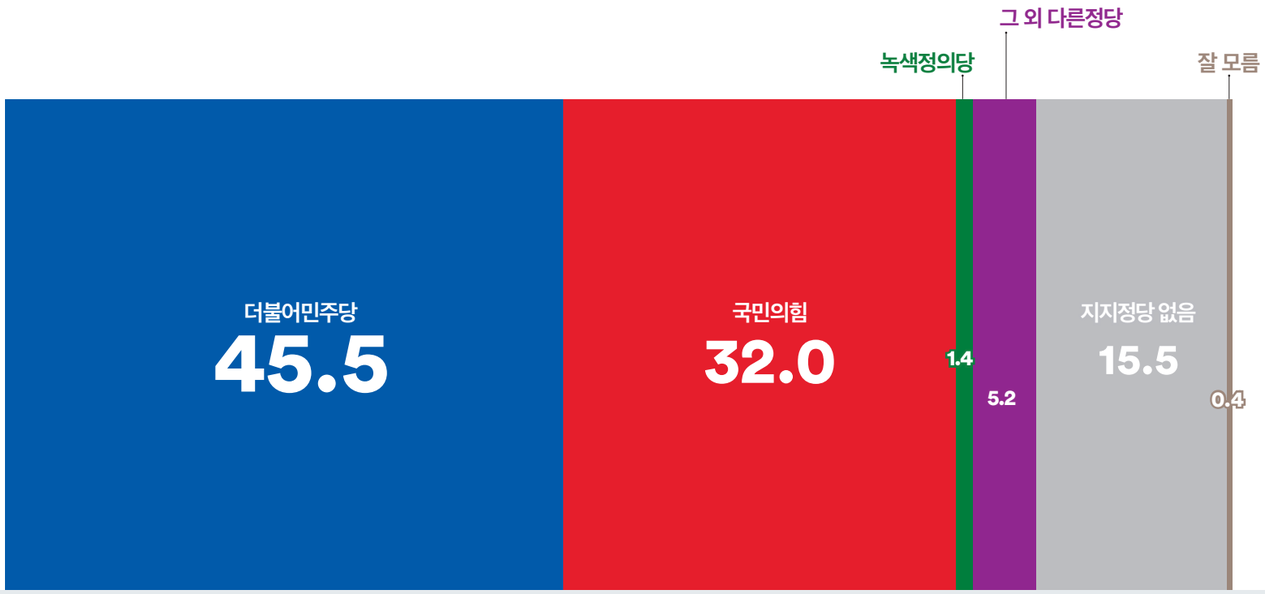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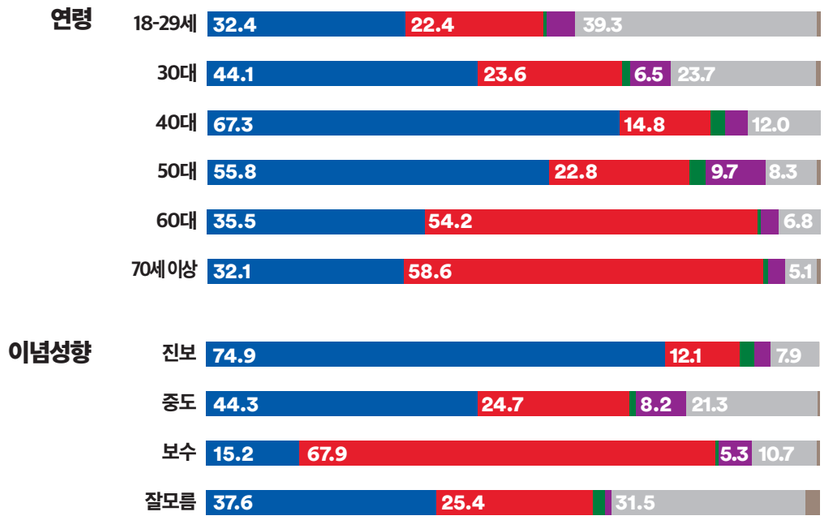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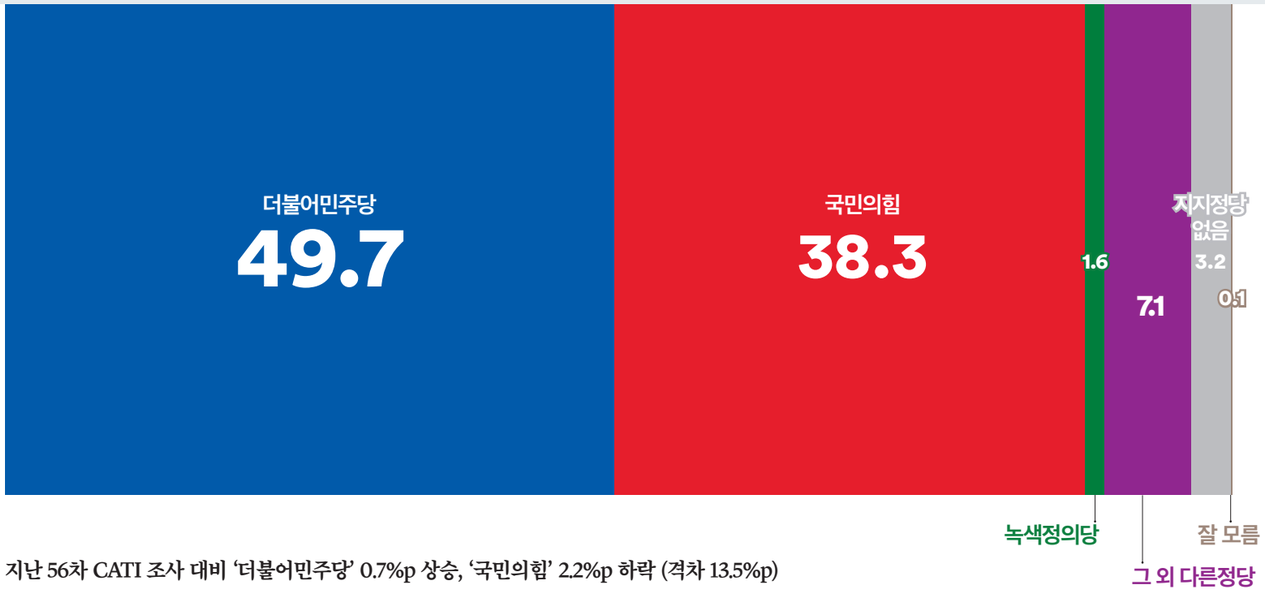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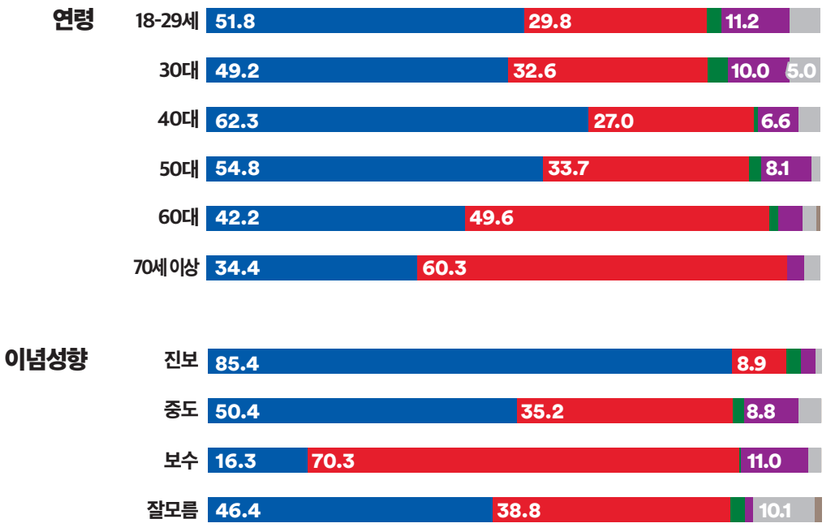
CATI





ARS





지난 56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7%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 (격차 13.5%p)
지난 71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6%p 하락, '국민의힘' 1.4%p 상승 (격차 11.4%p)
경인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중도층의 양당 간 격차는 CATI 조사 19.6%p(지난조사 : 18.8%p), ARS 조사 15.2%p(지난 조사: 2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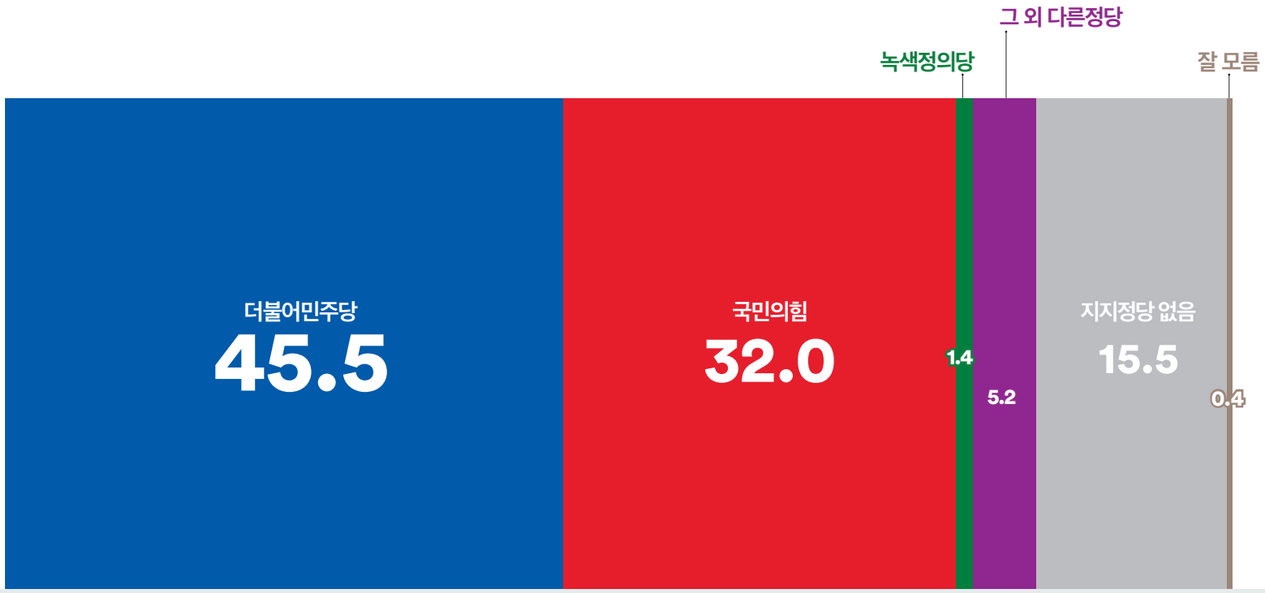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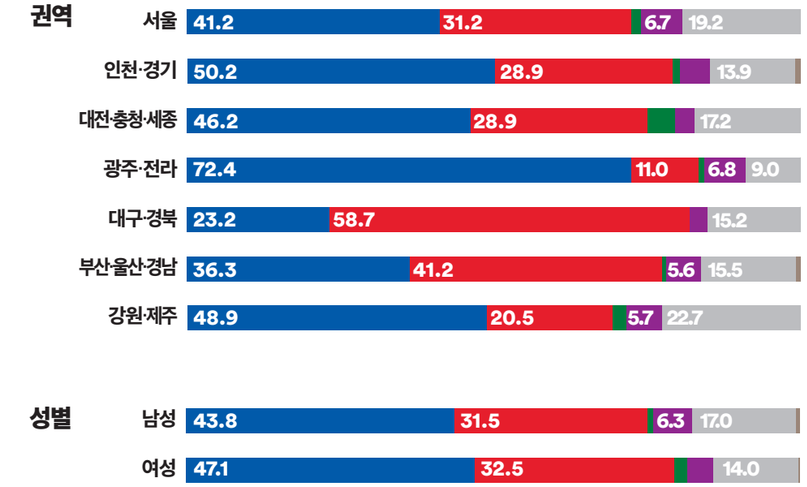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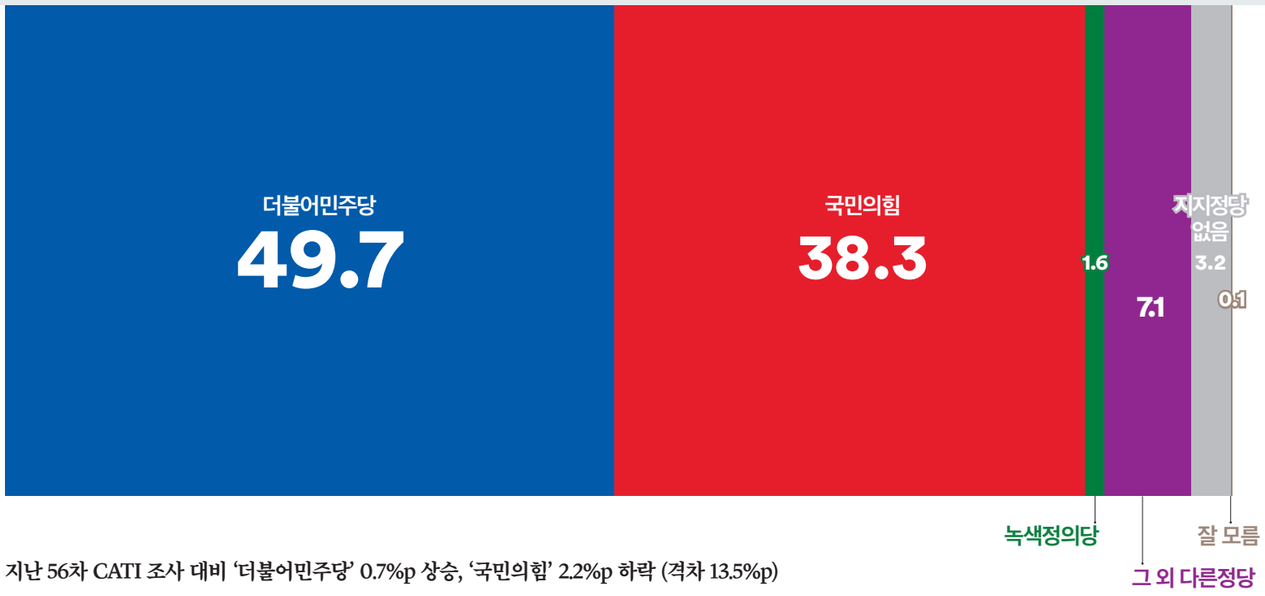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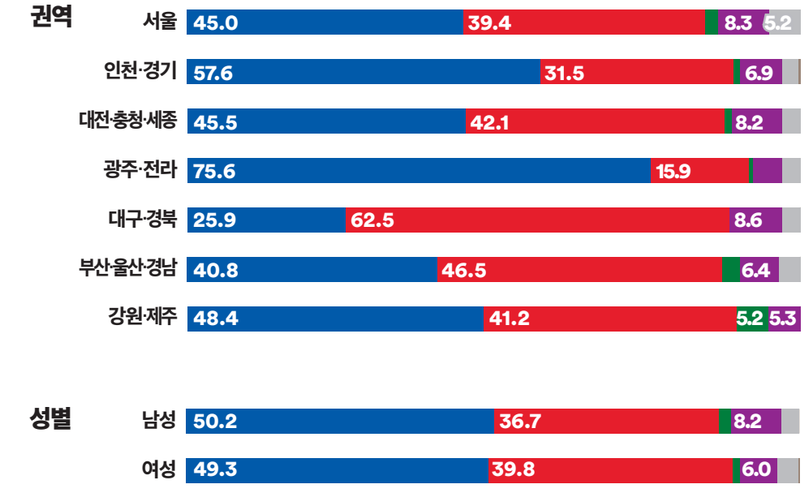
CATI





ARS





지난 56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7%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 (격차 13.5%p)
지난 71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6%p 하락, '국민의힘' 1.4%p 상승 (격차 11.4%p)
경인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중도층의 양당 간 격차는 CATI 조사 19.6%p(지난조사 : 18.8%p), ARS 조사 15.2%p(지난 조사: 2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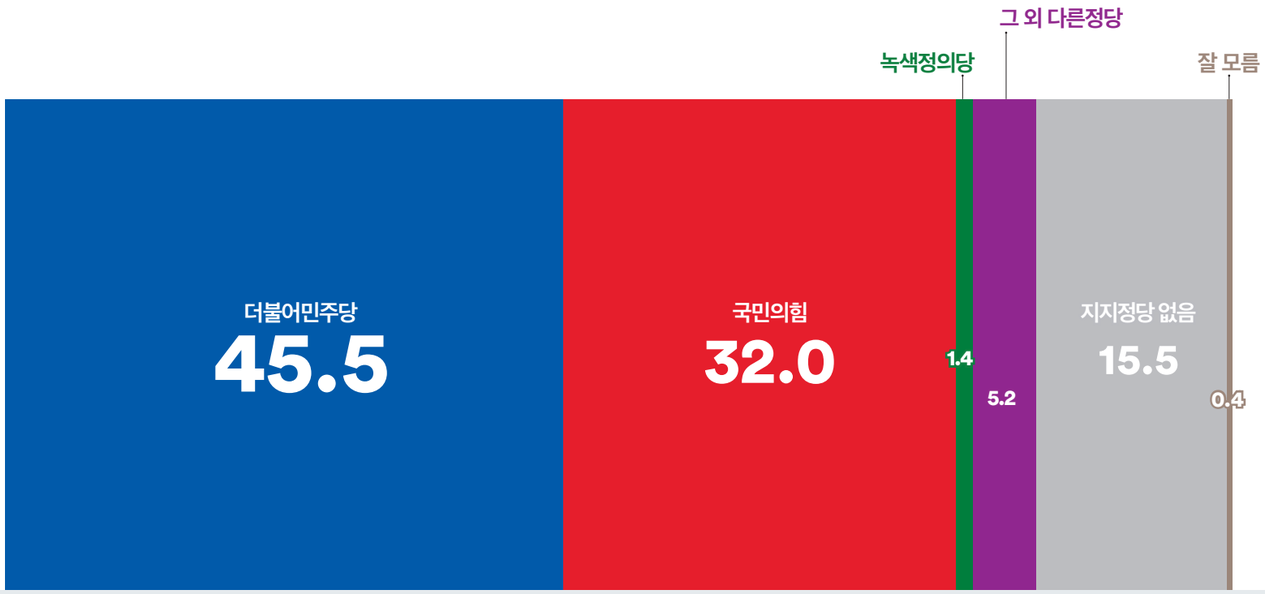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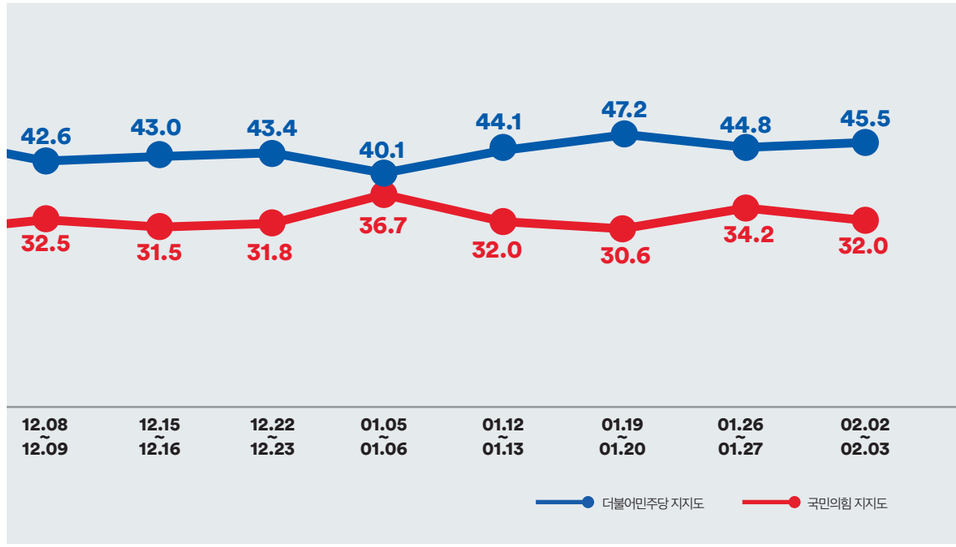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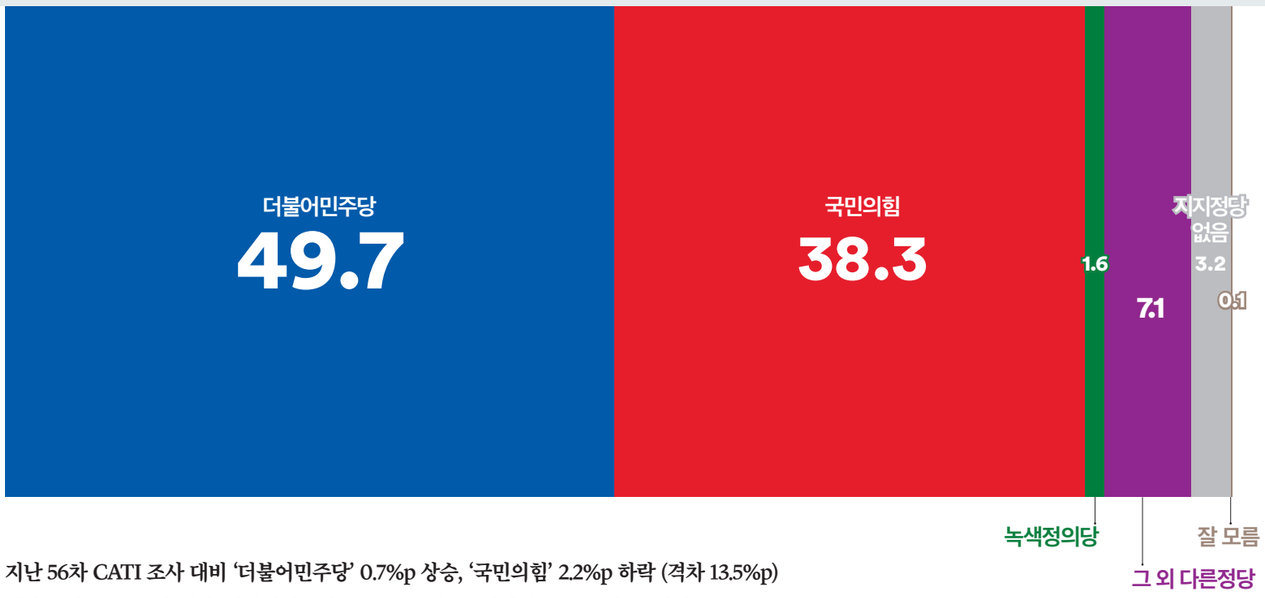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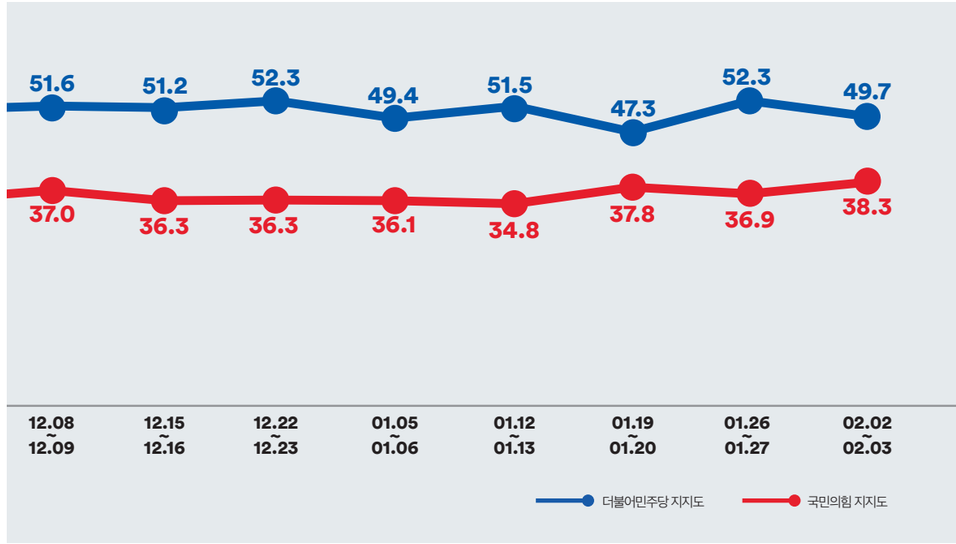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지난 56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7%p 상승, '국민의힘' 2.2%p 하락 (격차 13.5%p)
지난 71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6%p 하락, '국민의힘' 1.4%p 상승 (격차 11.4%p)
경인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중도층의 양당 간 격차는 CATI 조사 19.6%p(지난조사 : 18.8%p), ARS 조사 15.2%p(지난 조사: 2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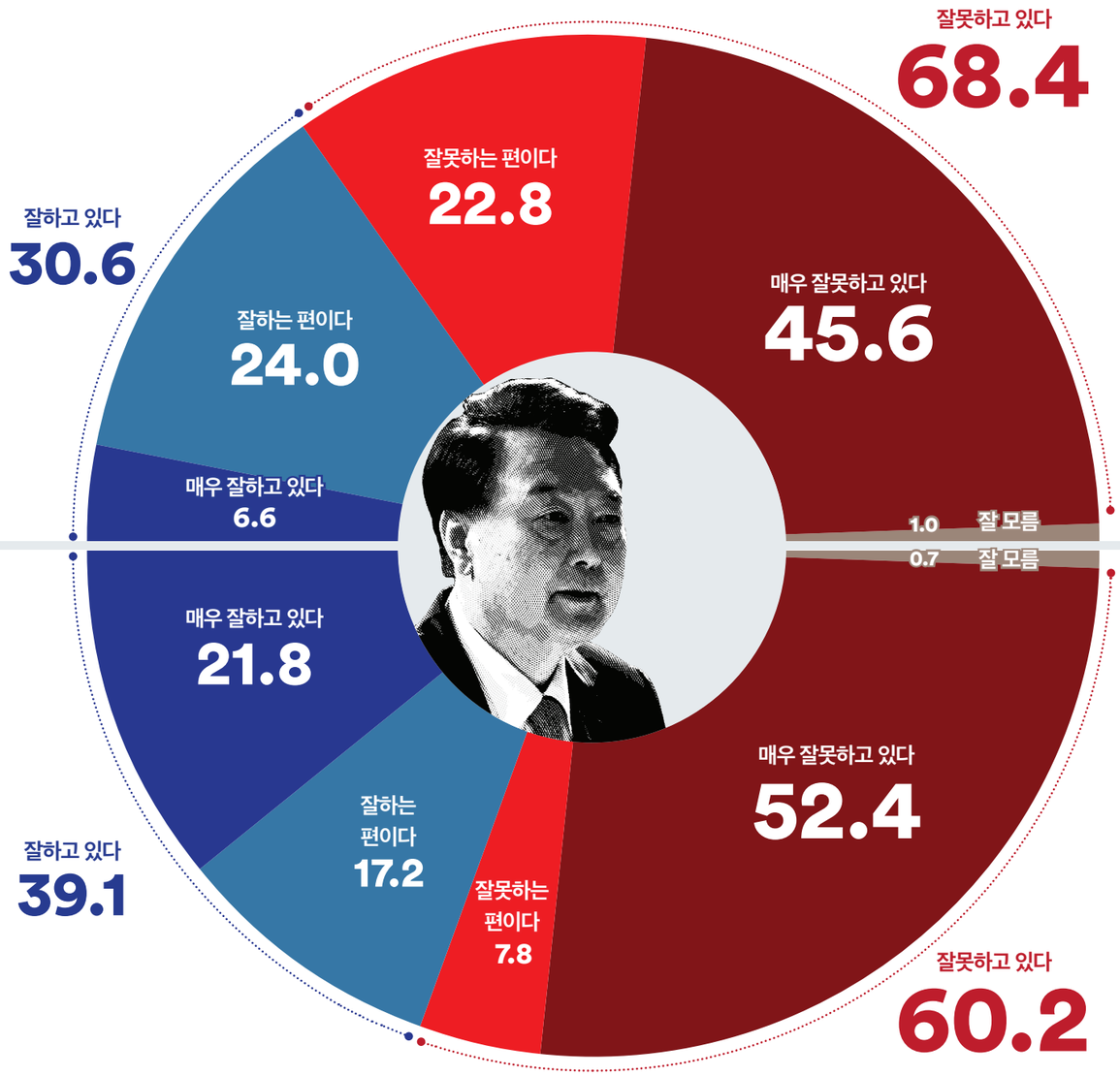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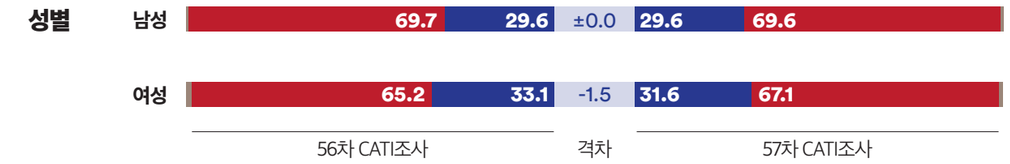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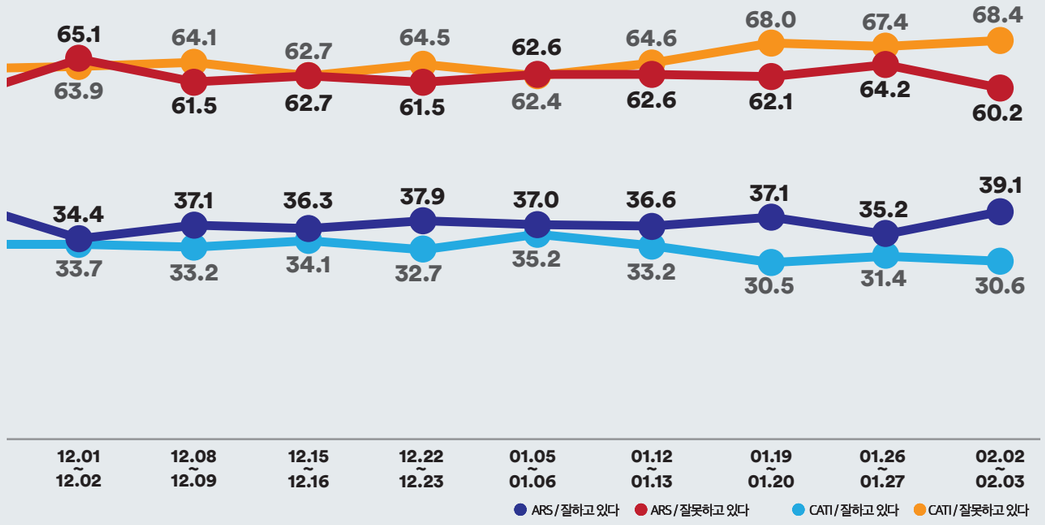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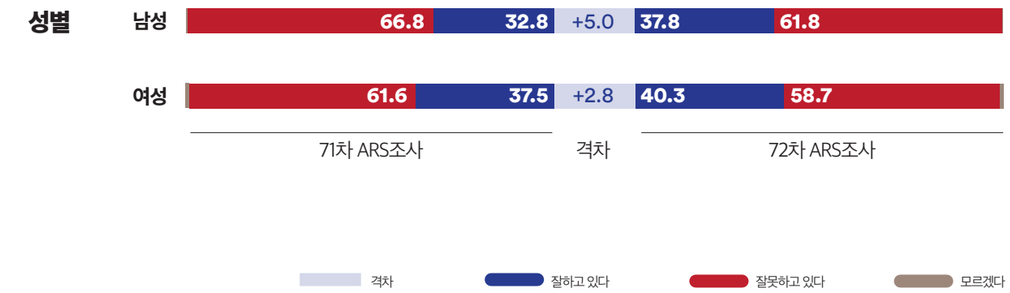


지난 56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8%p 하락, '부정'평가 1.0%p 상승 (격차 37.8%p)
지난 71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3.9%p 상승, '부정'평가 4.0%p 하락 (격차 21.1%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은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 우세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 51.1%p(지난조사 : 51.2%p), ARS 조사 29.4%p(지난 조사: 40.3%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무단 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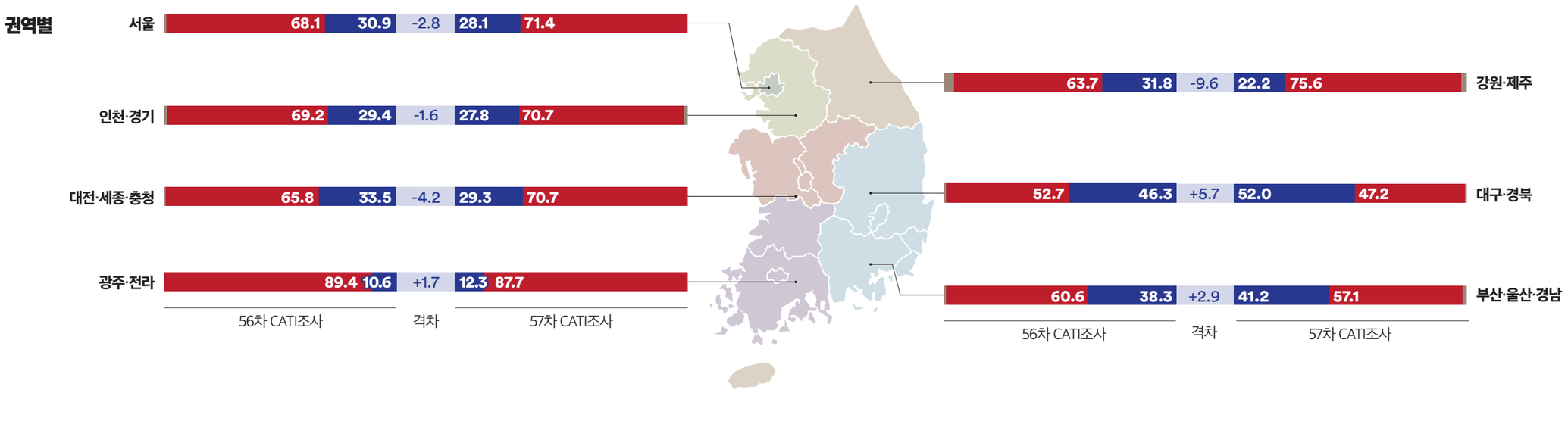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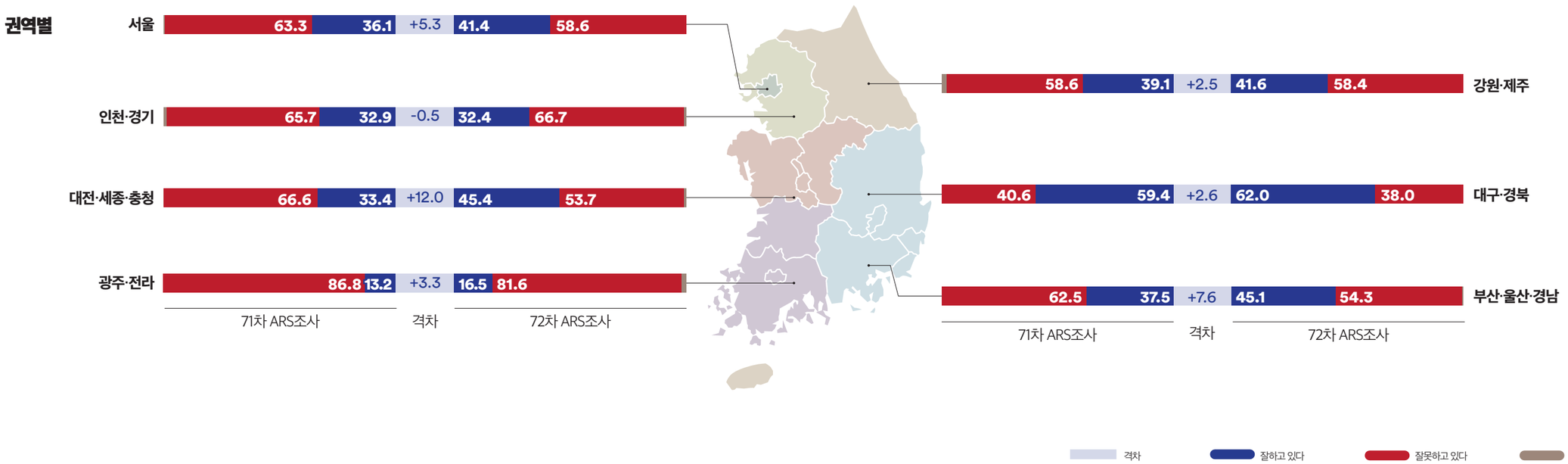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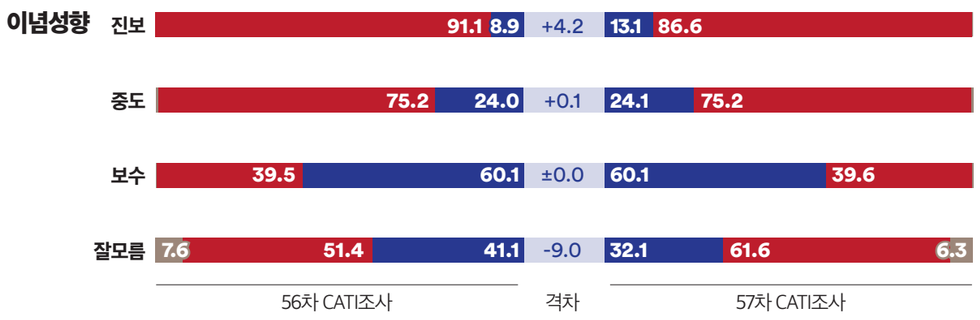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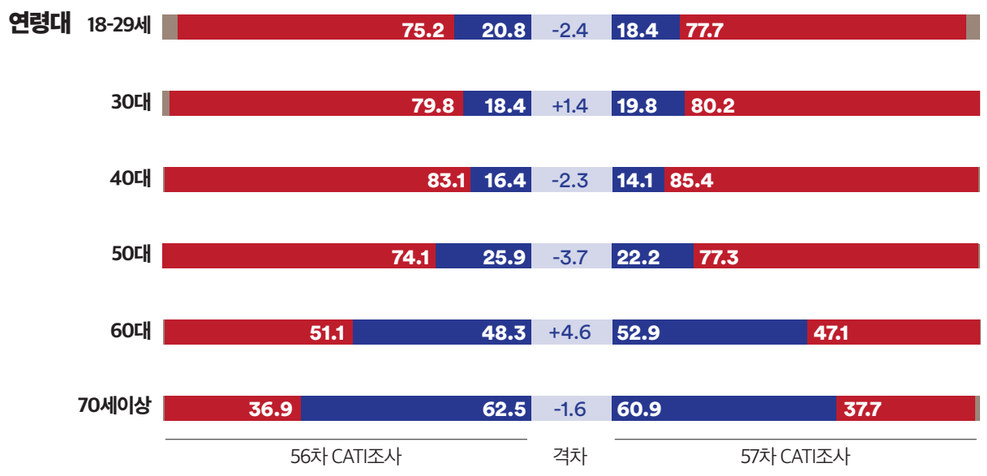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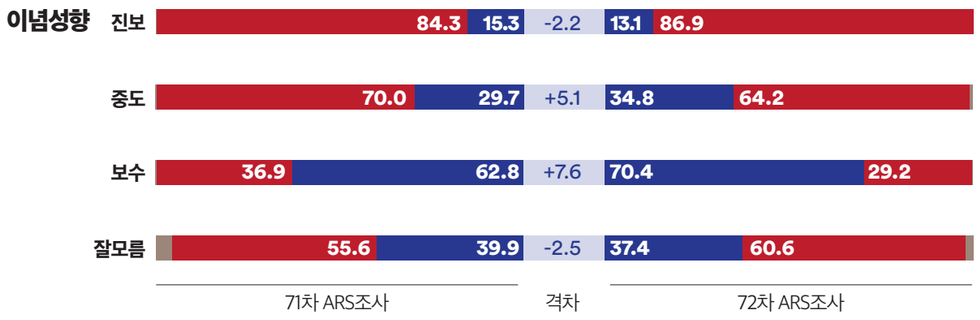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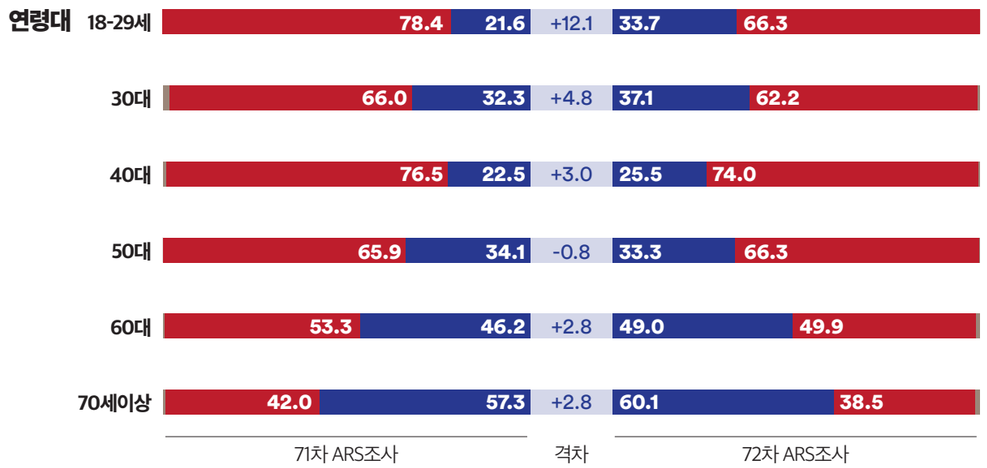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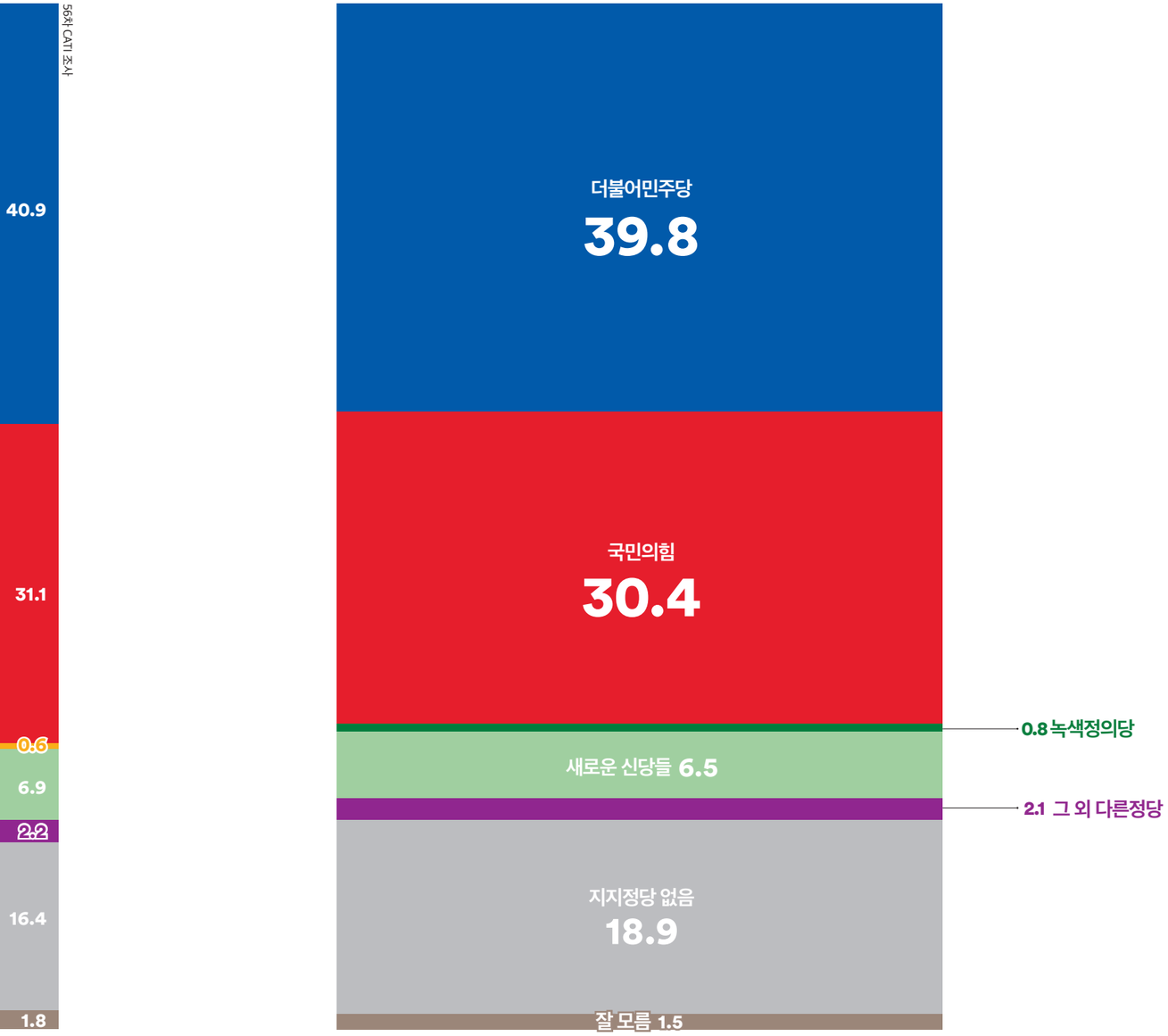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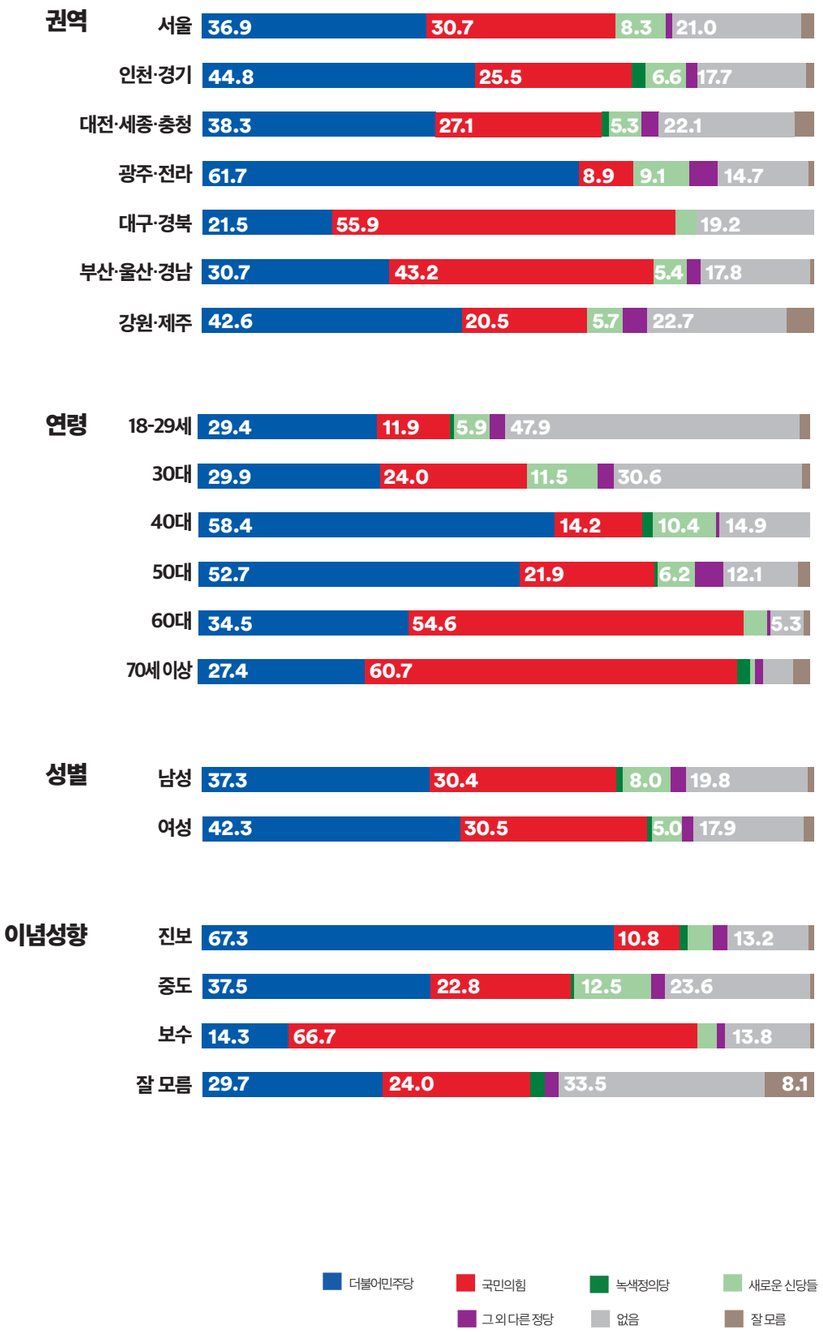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내년 총선 예측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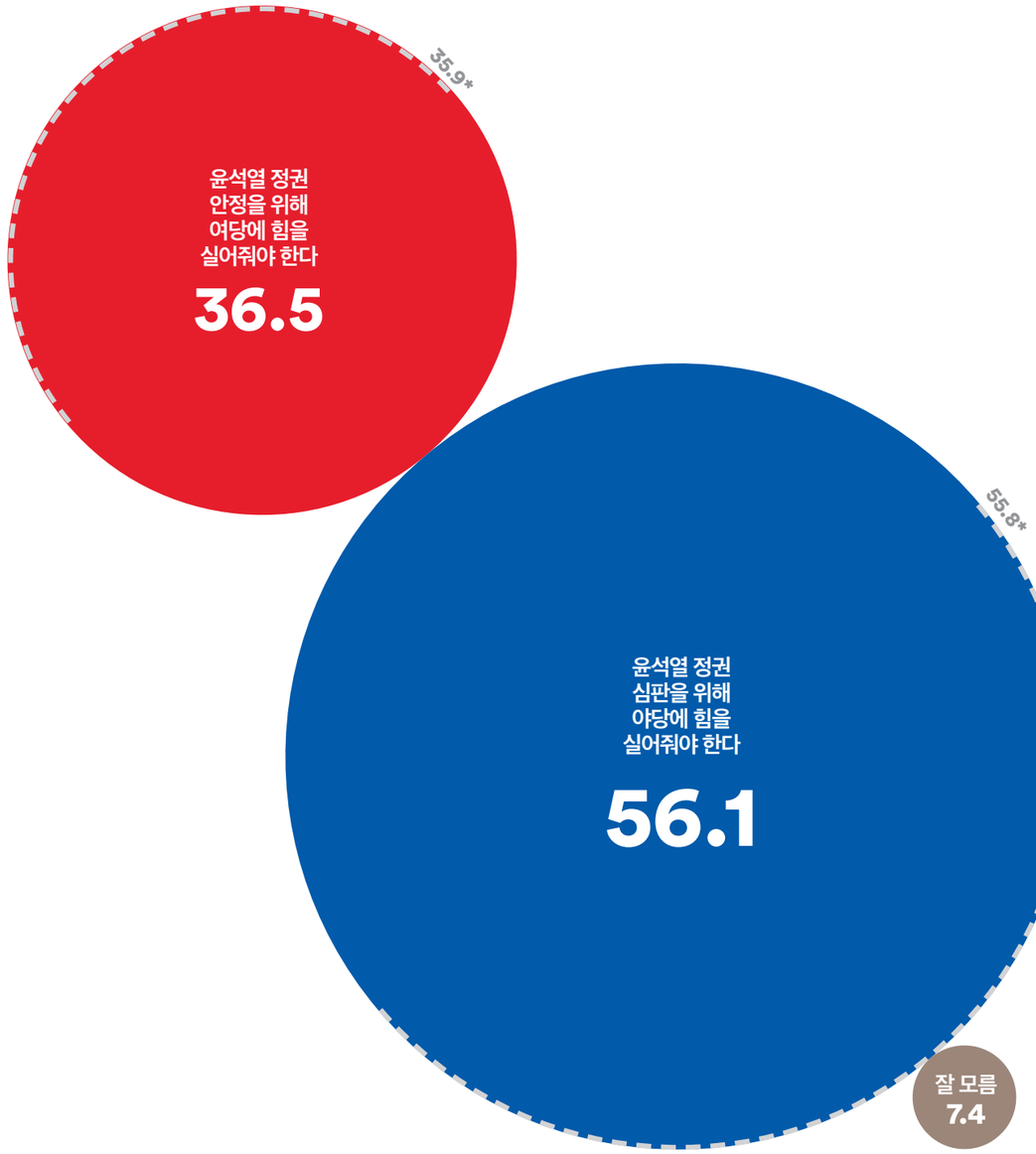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대비 앞섬 (격차 9.4%p)
지난 56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1.1%p 감소, '국민의힘'은 0.7%p 감소, '새로운 신당들'은 0.4%p 감소
경인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TK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섬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5%, '국민의힘' 22.8% (양당간 격차 14.7%p)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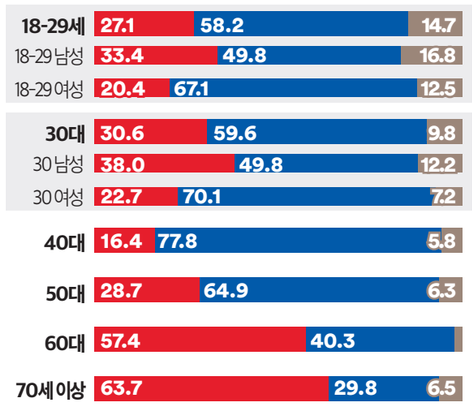
차기 총선 프레임

Q. 차기 총선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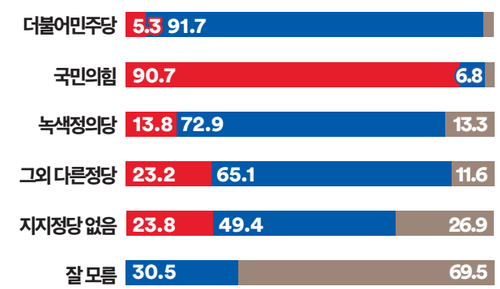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 (격차 19.6%p)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TK 및 60대 이상 응답층은 '정권 안정론'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우세 (중도층 격차 29.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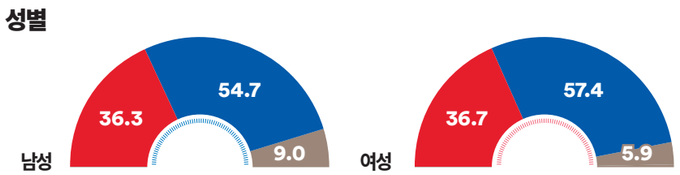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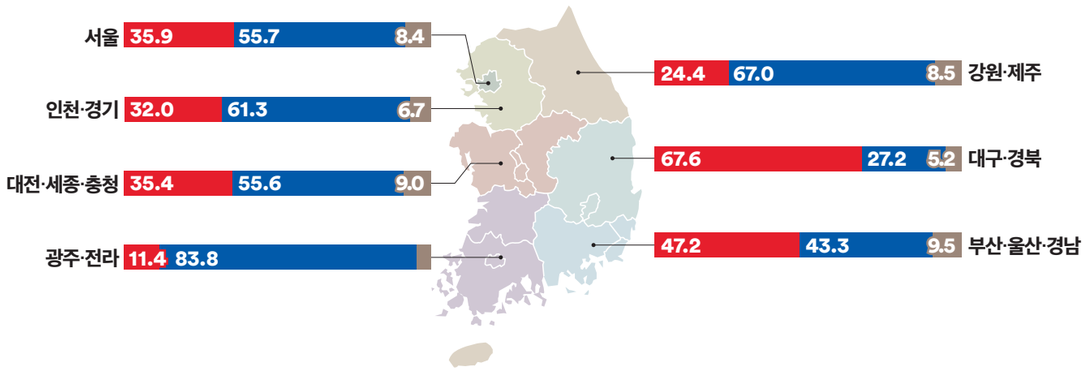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모르겠다

* 54차 CATI 조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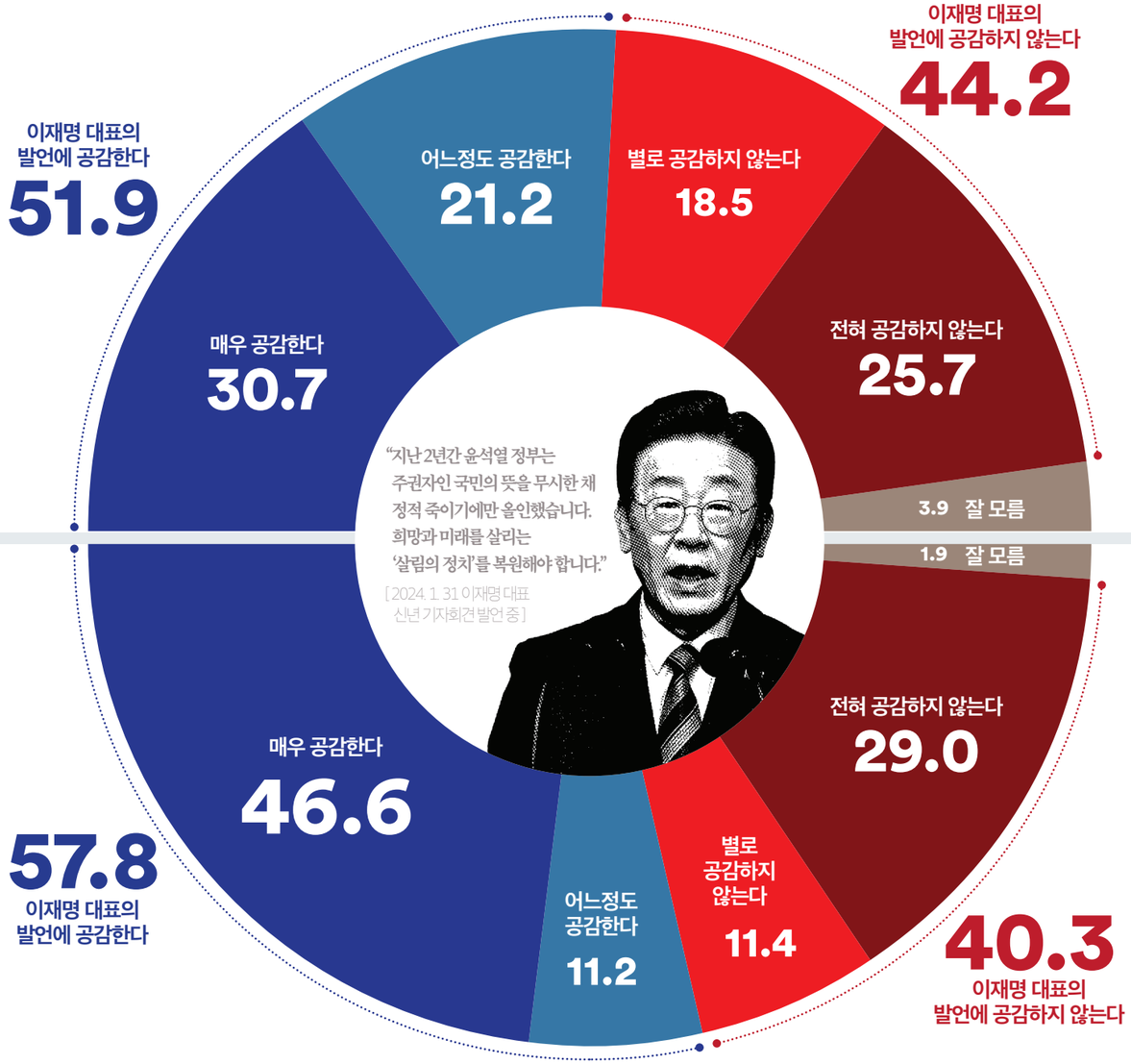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발언 공감도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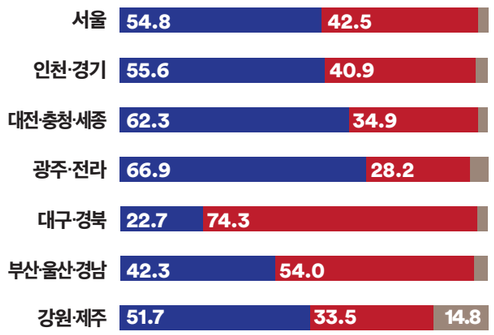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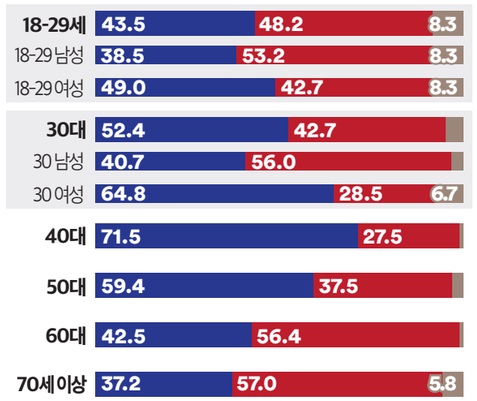
ARS

두 조사 모두 응답자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 발언에 공감한다'고 응답 (격차: CATI 7.7%p, ARS 17.5%p)
경인·호남권(CATI 충청권 포함)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 TK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CATI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두 조사의 여성층 및 ARS 조사의 남성층은 '공감한다'는 응답 우세, CATI조사의 남성층은 박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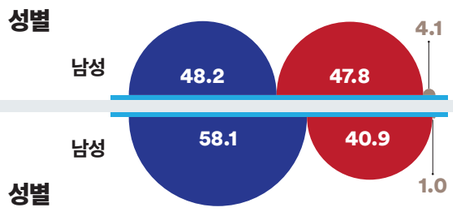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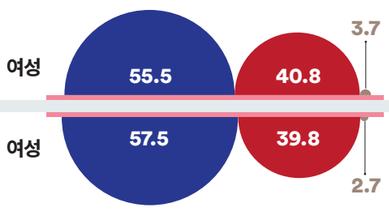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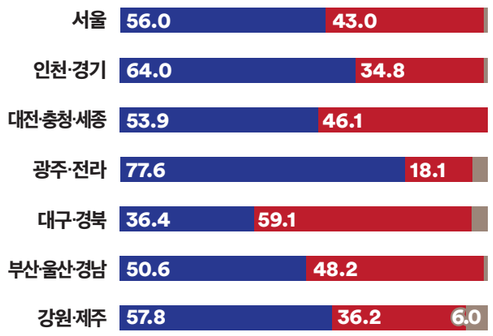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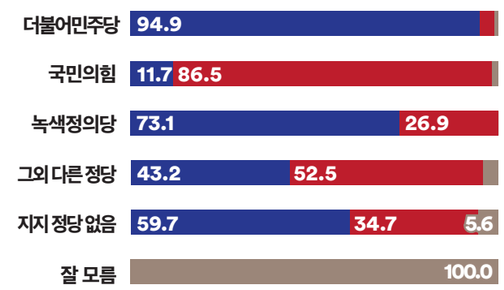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응답자 성별·연령·지역 할당 후 가중치 부여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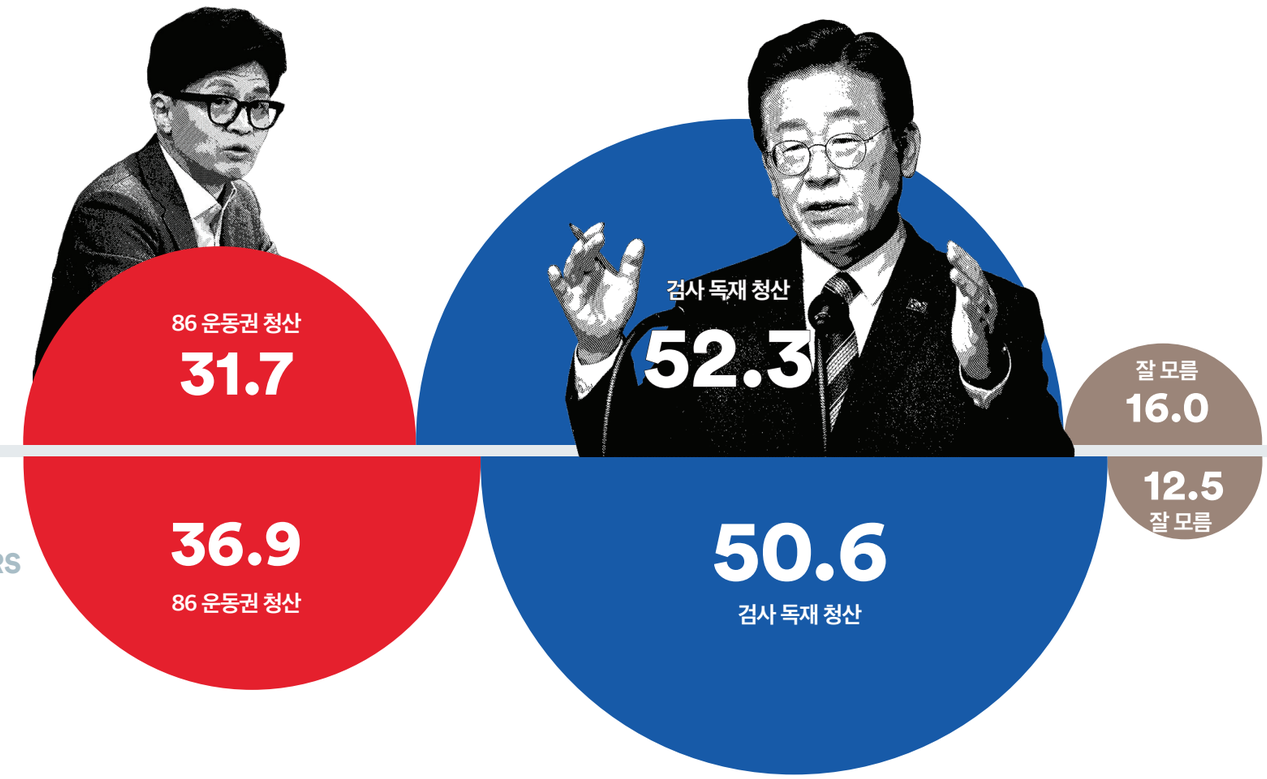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Q.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6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대정신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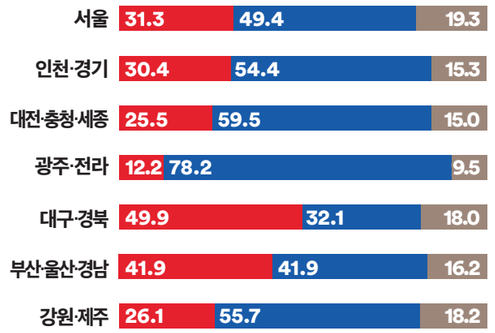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
"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정치의 후퇴를 이끌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4.1.31 한동훈 비대위원장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 축사 내용 중]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2023.1.31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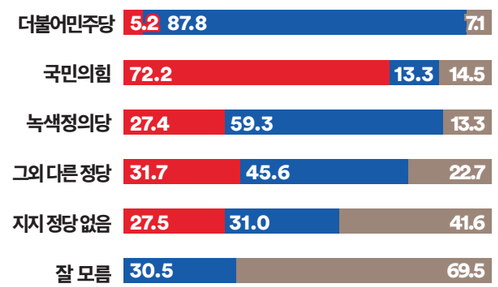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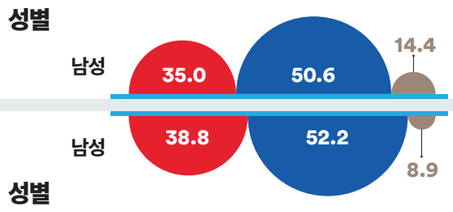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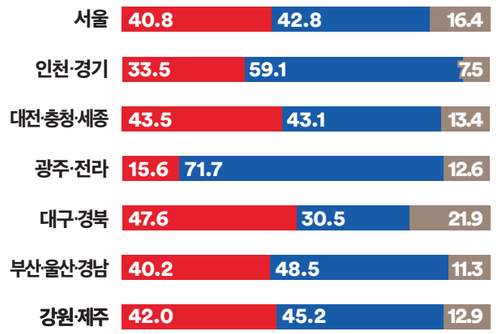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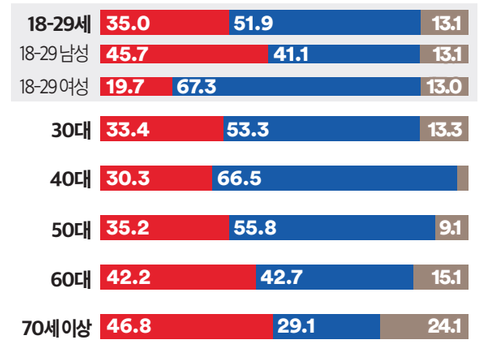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86 운동권 청산 검사 독재 청산 모르겠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현재의 시대 정신이 '검사 독재 청산'라고 응답, '86 운동권 청산'이란 응답 대비 우세(응답간 격차: CATI 20.6%p, ARS 13.7%p)
두 조사의 경인·호남(CATI 서울, 충청, 강원·제주 포함)에서는'검사 독재 청산'라는 응답이 우세
TK권의 경우, 두 조사 모두 약 17%p의 격차로 '86 운동권 청산'이란 응답이 앞섬
30·40·50대(CATI 18~29세 포함)에서는 '검사 독재 청산', 70세 이상 연령대는 모두 '86 운동권 청산'이란 응답이 우세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응답이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26.3%p, ARS 17.9%p)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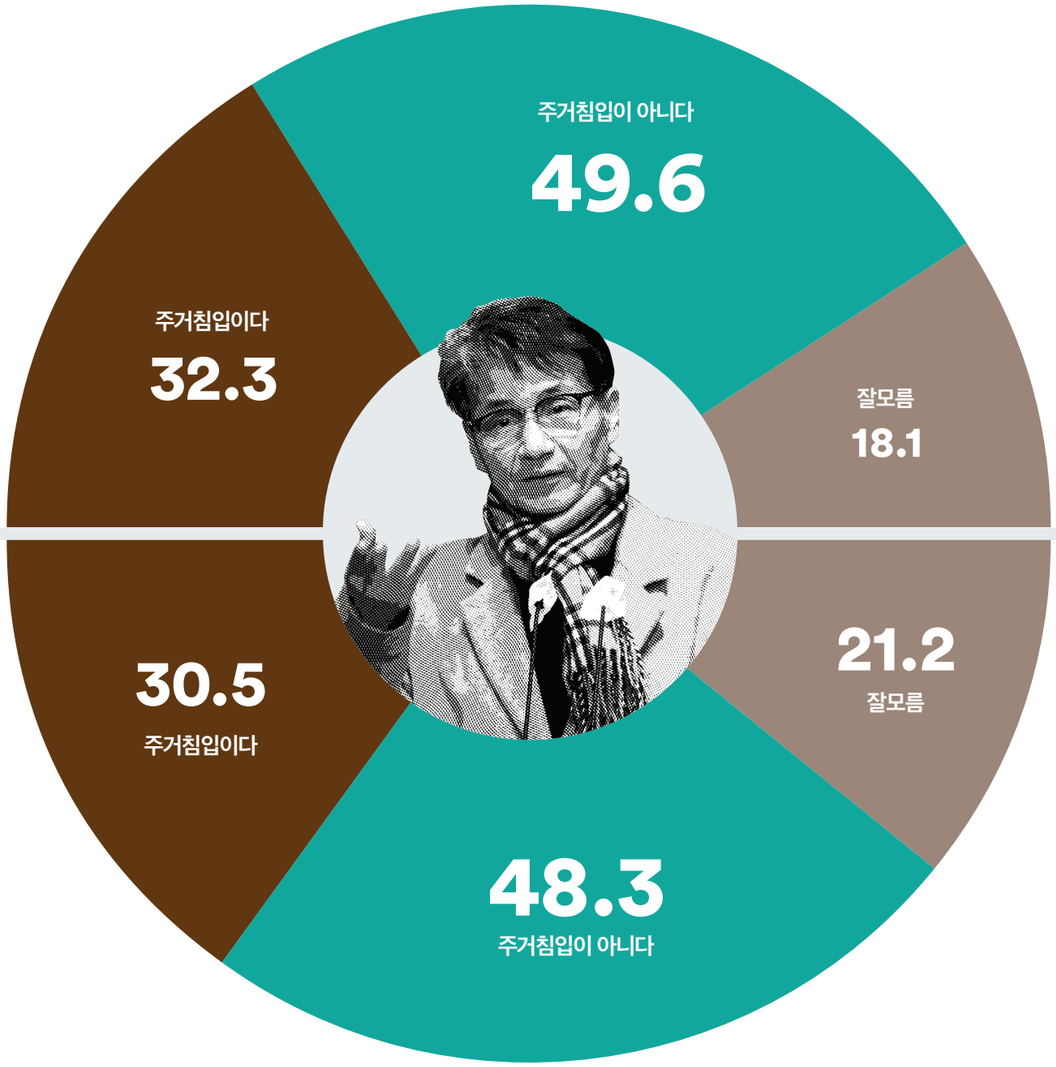
대통령 배우자 명품수수: 최재영 목사 '주거침입' 여부

Q. 대통령 배우자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주거침입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한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하고 그 여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부터 이 모든 사건이 출발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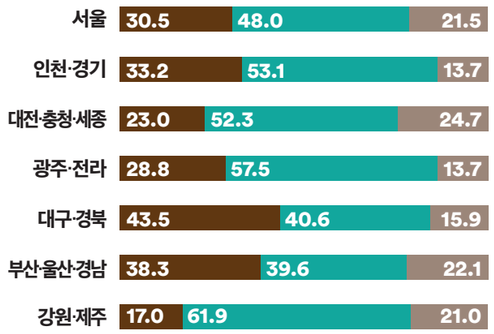
[2023.1.22 최재영 목사 기자회견 발언중]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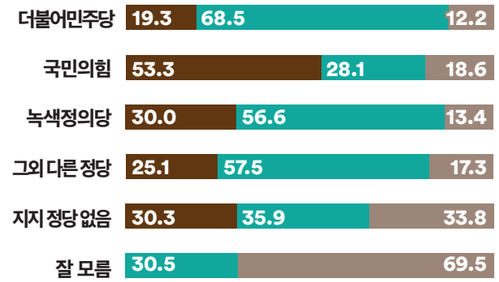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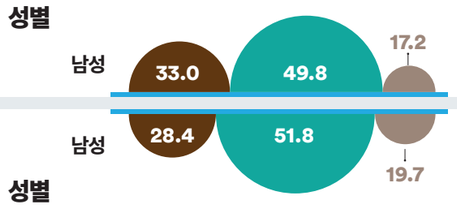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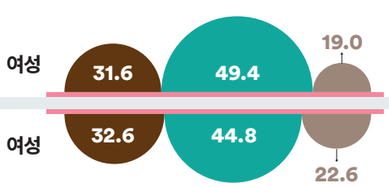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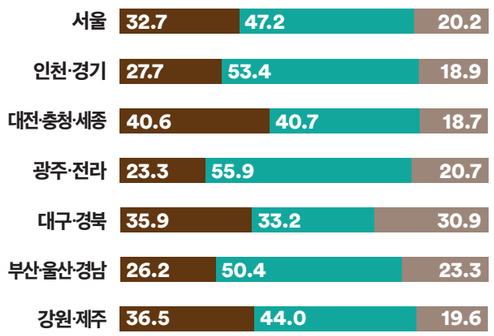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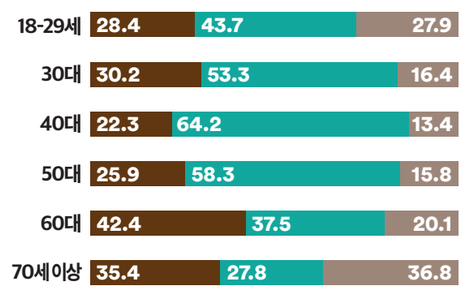




권역



연령



두 조사 모두 약 17%p의 격차로 '주거침입이 아니다'리는 응답이 우세

수도권·호남권(CATI 충청, 강원·제주권, ARS PK권 포함)에서는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

30~50대는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은 '주거침입이다'라는 응답이 앞섬

중도층에서도 두 조사 모두 '주거침입이 아니다'란 응답 우세 (격차: CATI 27.8%p, ARS 20.5%p)

무단 배포 금지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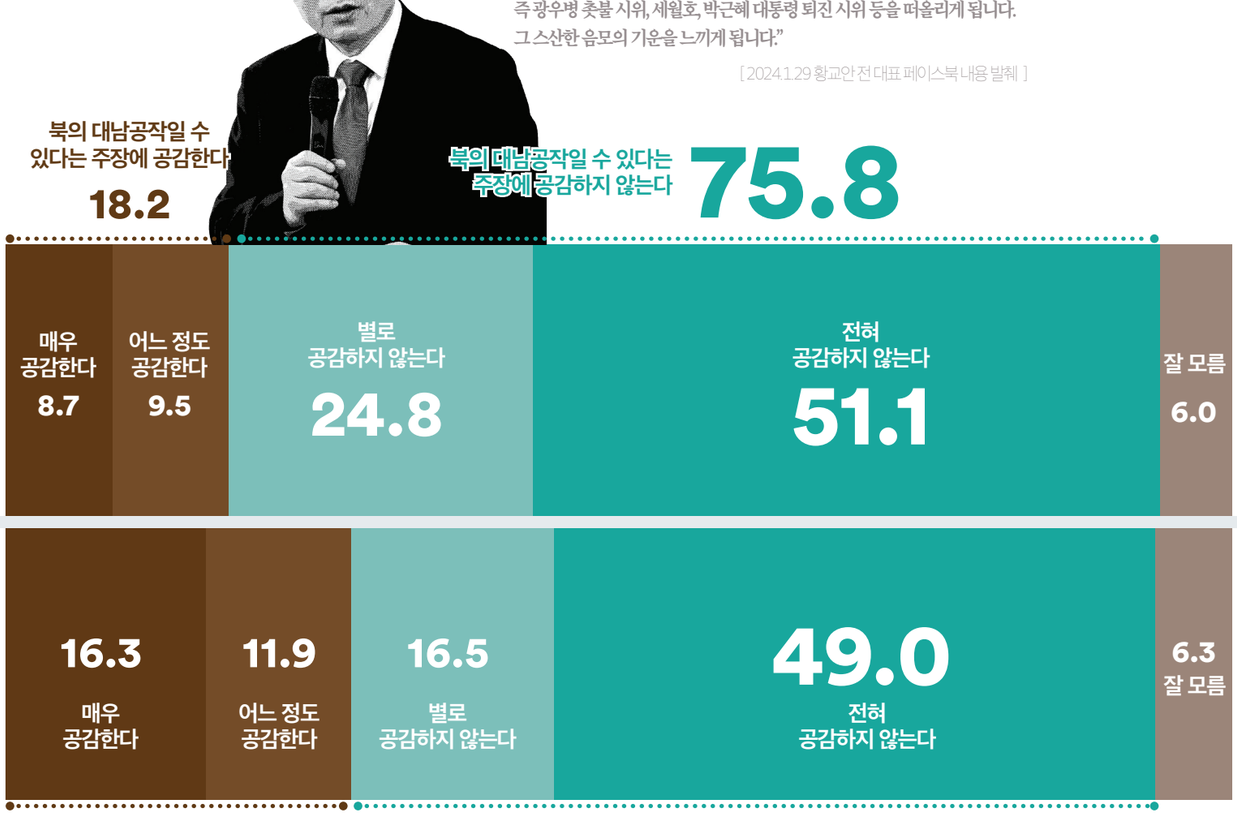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수수: '북의 대남 공작' 주장 공감도

Q. 황교안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는 북의 대남 공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CATI

"몰카공작 이전에 대남공작입니다.
이번 사건은 종북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정국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벌인
대남공작이라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간첩 등 공안사건을 30여년 가까이 다뤄온 저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내지는 국내 종북좌파 등 제5열(스파이 등)이 꾸몄다고 봅니다.
제5열에서 누군가가 용의주도하게 일을 진행시켰던 과거 사건들,
즉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스산한 음모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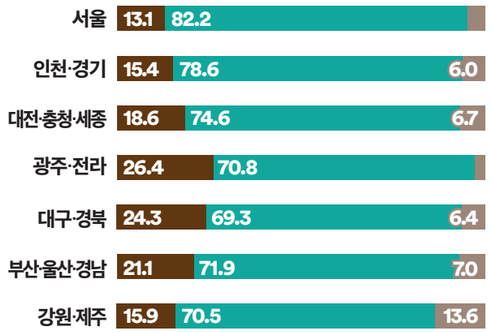
[2024.1.29 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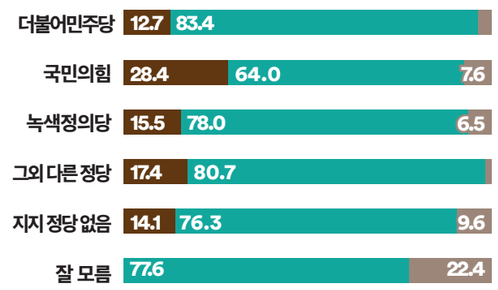
ARS

두 조사 모두 '북의 대남공작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북의 대남공작일 수 있다는 주장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남
ARS 조사의 강원·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권역별 변수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중도층 격차: CATI 67.8%p. ARS 4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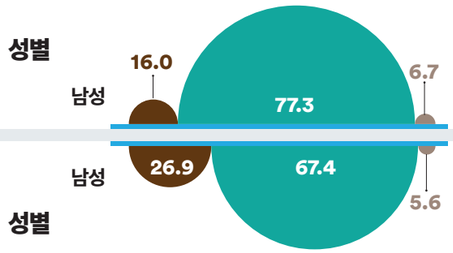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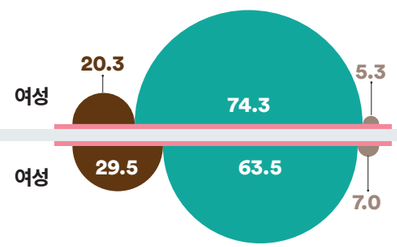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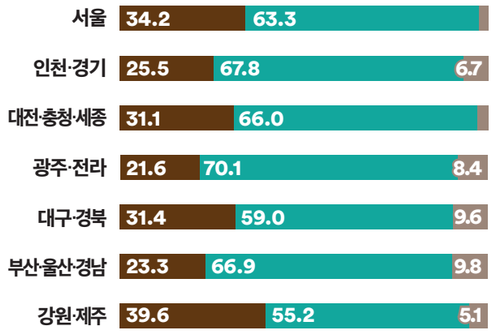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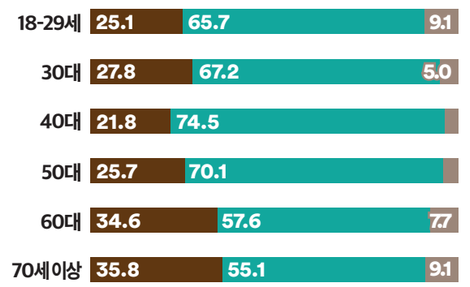




권역



연령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2_02

여론조사꽃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